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형 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지 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박 형 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 전공

김 지 혜

인 준 서

김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의 격변기인 청소년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진학할 중·고등학교에서 이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배경에 따라 집단별로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다. 경기, 인천, 대전의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146명과 경기도의 한국 가정 중·고등학생 161명, 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부분적으로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더 높았고, 성격적 자아존중감은 약간 낮았다.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 친구관계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달랐다. 차별경험이나 의사소통문제와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수한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한국 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보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난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 일본계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일본계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도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국적이거나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집단이며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관련 문헌 검토	4
1. 자아존중감	4
2. 다문화 가정	6
3.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10
4.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방법 및 절차	22
2. 연구변인	23
1) 종속변수	24
2) 독립변수	26
3) 연구모형	32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33
IV. 연구결과 및 논의	35
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35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집단별 자아존중감 비교	46

1)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46
2) 아버지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48
3) 어머니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49
3.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52
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52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54
V. 결론 및 제언	55
1. 결론	55
2. 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5
부록	67
1. 회귀분석 결과	67
1) 다문화 가정 청소년	67
2) 한국가정 청소년	68
2. 사후검증 결과	70
1)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70
2) 아버지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71
3) 어머니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73
3. 설문지	76
1)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 설문지	76
2) 한국 가정 청소년 대상 설문지	88

표 목 차

<표 II-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11
<표 II-2> 전체 재학생 중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	12
<표 II-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	13
<표 III-1> 학교급별 조사대상자 수	17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7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지역크기별 분포	18
<표 III-4>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학력	18
<표 III-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특성	19
<표 III-6> 자아존중감 척도의 영역 및 신뢰도	25
<표 III-7> 연구내용의 영역 및 측정변인	26
<표 III-8>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구성 내용과 관련문항	29
<표 IV-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35
<표 IV-2>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36
<표 IV-3>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47
<표 IV-4> 아버지 국적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48
<표 IV-5> 어머니 국적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50

그 립 목 차

<그림 II-1> 2009년 외국인주민 현황	11
<그림 II-2>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분류	14
<그림 III-1> 연구모형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의 현재의 삶은 물론 미래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인공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현재, 미래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 같은 내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외모, 학업 성취도, 사회 경제적 지위 및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의 지도 감독 등과 같은 외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부모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외모적인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언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낮은 학업 성취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와 함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배척¹⁾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계 부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다문화 가정 자녀로써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계 부모 사이에서 정서적 또는 심리적 지원을 받는데 한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급격한 자아 존중감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발

1) 국제결혼 자녀의 약 20%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13.4%)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의 주된 이유는 '잘난척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 자녀는 단순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34.1%)'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달, 2006)

견할 수 있다. 첫째, 주로 한국계 아버지와 동남아시아계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과 그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어린 자녀로 연구 대상이 치우쳐져 있어, 정작 자아존중감의 격변기인 중·고등 학령기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 그나마 중·고등 학령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실태 등 그들의 피상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삶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갖게 되는 자아존중감 문제나, 그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 번째, 최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국적이 매우 다양하고, 다문화 가정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양육되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상이한 집단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존중감 수준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의 일반적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수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집단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에 자아 존중감 수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여러 가지 배경요인에 따라 한국 가정 청소년들

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을 맞이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자녀들을 대할 때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2-1)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2-2)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관련 문헌 검토

1.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나 태도 속에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생활 적응 및 건강한 인격발달과 자아실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고 창의적이다(김희화, 김경연, 2000).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김희화, 2002; 심응철, 1992; 심희옥, 1998).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홍성훈, 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 정은미, 2003).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심희옥, 1997; 양종국, 김충기, 2002; 유성경 외, 2000; 최은영, 최인령,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15~6세 전후로 자아개념이 가장 혼돈에 이르며 청소년 후기에 이를수록 자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동의 자아 의식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주변 인물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변인물들이 알아줄 때에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 Kaplan은 사회화과정에서 건전한 자기개념으로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청소년들에게 관련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므로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모,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집단과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부모의 지도 감독 등과 같은 외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의 사회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학교성적 수준에 따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많이 투여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영,2004). 어머니의 영향이 아버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김희화, 김경연 1998), 학교 교사보다 부모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가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보다 또래의 평가가 더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도 있다(김성태,1985). 특히,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괴롭힘을 당하느냐는 것은 자아 존중감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주요변인이었다(김희화, 김경연, 1998; 이숙, 최정미, 2003; 이은진, 2004; 이현림, 최현주, 2003; 최미경, 도현심, 2000; 최정미, 김미란, 2003; 한중혜, 1996).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손원숙, 1994; 조성연, 1997; 현희순, 김양순 1999; 홍순혜, 2004). 또한 외모와 같은 신체적 매력은 청소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적 요인 중 하나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정익중, 2007).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정익중, 2007).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 후기에 안정화된 자아존중감이 그 사람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가정적 환경이나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정적 환경이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수성에 기인한 차별 경험이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등 성장과정에서 한국 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한국 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multi-culture family)'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중문화가정(dual-culture family)', '국제결혼가정', '혼혈인 가정'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차별적 성격을 갖는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다문화 가정이라 함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최근까지 그 범주에 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정

책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외에 새터민 가정(탈북자 가정)과 귀국가정(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정) 및 귀화가정(외국 국적의 두 부부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가정)을 모두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전경숙, 2008).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는 한국 거주 기간 및 정착 여부를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직업상의 이유로 잠시 한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조사된 연구대상자들은 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과 이민 2~3세대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민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이론에는 분절적 동화이론, 문화결핍이론, 문화우위이론, 문화갈등이론, 문화 모델 접근 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민의 문화가 짧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분절적 동화(segmented assimilation)이론(조혜영 외 3인, 2008; 전경숙, 2008; 김정원, 2006)과 문화결핍(cultural deprivation)이론(전경숙, 2008; 조혜영 외 3인, 2008), 자발적 소수 민족 문화 모델(voluntary minority cultural model)이론(조혜영 외 3인, 2008; 김정원, 2006)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절적 동화이론은 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자본(개인적 측면)과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지리적·경제적 환경(구조적 측면)의 특성에 주목한다. 즉, 이민자가 높은 학력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상류층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와 낮은 학력과 낮은 직업을 가지고 하류층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또한 호스트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응 양상이 달라지고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문화결핍이론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아동 가정의 부모들의 경우 자녀 학습에 필요한 문화적 관습이나 양육기술의 부재로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핍된 문화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소수민족 문화 모델은 소수민족을 이주 과정의 자발성에 따라 비자발적 소수민족(involuntary minority)와 자발적 소수민족(voluntary minority)로 구분한다. 비자발적 소수민족은 호스트 국가에 노예제도나 정복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편입된 경우이고, 자발적 소수민족은 스스로 호스트 국가로 이동한 경우이다. 비자발적 소수민족은 흔히 미국의 흑인 집단이 이에 해당되며, 자발적 소수민족은 미국의 아시아계 소수민족이 해당된다. 자발적 소수민족의 경우 호스트 국가에서의 삶이 이전 사회에서의 삶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그들의 이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업에서의 높은 성취를 추구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문화의 역사는 1945년 이후 미군정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혼혈의 역사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혼혈인 1세대는 초기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기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이른바 '전쟁 혼혈 고아'라 불리웠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쟁 중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도 혼혈인에 대한 폐쇄적 분위기와 혼혈인 국가 정책의 부재로 매우 심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왔으며 가난에 시달린 세대이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출생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지속되었고 일상적 차별을 받았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분절적 동화이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세대 혼혈인은 1960년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기지촌 성매매가 국가 개입으로 산업화·체계화되는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1세대 혼혈인과는 달리 기지촌이라는 일반 거주지와 분리된 지역에서 다른 혼혈인과 어울리며 성장하였다. 기지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차별은 없었다. 따라서 1세대 혼혈인에 비해 극심한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학력으로 직업이 불안정하며,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혼혈 1세대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적응상황은 분절적 동화이론과 문화결핍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지촌과 성매매 여성이라는 열악한 환경적 상황, 그리고 부모인 외국인과 성매매 여성들이 자녀의 사회 적응에 적극적 지원을 해주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세대 혼혈인은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들을 말한다. 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외국인의 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80년대 말 중국 및 소련과의 교류 추진과 90년대 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세대 혼혈인들은 보다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90년대와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혼혈 3세대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대학교수나 외교관과 같은 전문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혼혈 2세대와 같이 미군 부대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종이 다른 부모를 두고 있는 군인 가족의 아이들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미래와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송미경 외 3인, 2007). 이들은 소수민족문화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된 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국제결혼가정과 귀화가정의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2~3세대들이므로 소수민족문화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혼혈인과 같은 불우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이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이들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3.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최근 우리 사회의 구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7월 현재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891,341명 대비 215,5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24.2%에 이른다. 이들 중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되며 이 수치는 2008년도 대비 22,960명(22.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를 차지하며 이 역시 2008년도 대비 137,930명 증가(31.5%)하였다(행정자치부, 2009).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폭도 상당히 크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초등학교에 16,785명, 중학교에 2,527명, 고등학교에 868명으로

<그림 II-1> 2009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

<표 II-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구분	연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		전체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초등학교	2005	5,332		995		6,327	
	2006	6,795	27.4	1,115	12.0	7,910	25.0
	2007	11,444	68.4	755	-32.3	12,199	54.2
	2008	15,804	38.1	981	29.9	16,785	37.6
중학교	2005	583		352		935	
	2006	924	58.5	215	-39.0	1,139	21.8
	2007	1,588	71.9	391	81.9	1,979	73.7
	2008	2,213	38.9	314	-19.7	2,527	27.7
고등학교	2005	206		227		433	
	2006	279	35.4	61	-73.1	340	10.6
	2007	413	48.0	63	3.3	476	40
	2008	761	84.0	107	69.8	868	82.4
2008년 총계		18,778		1,402		20,18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www. http://www.mest.go.kr)

그 수에 무려 20,180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우 급속하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가고

2) <표II-1>과 <표II-2>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현재 중·고등 학령기의 학생들은 1990년대 출생자들이 대부분이다.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2000년 이후의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학령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6세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5,537명에 달하며, 현재 만 5세에서 0세 사이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64,040명에 이른다.

<표 II-2> 전체 재학생 중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

구분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전체 재학생 수	다문화 가정 자녀 (%)	전체 재학생 수	다문화 가정 자녀 (%)	전체 재학생 수	다문화 가정 자녀 (%)	전체 재학생 수	다문화 가정 자녀 (%)
2005	4,022,801	6,327 (0.16)	2,010,704	935 (0.05)	1,762,896	433 (0.02)	7,796,401	7,695 (0.1)
2006	3,925,043	7,910 (0.20)	2,075,311	1,139 (0.05)	1,775,857	340 (0.02)	7,776,211	9,389 (0.12)
2007	3,829,998	12,199 (0.32)	2,063,159	1,979 (0.1)	1,841,374	476 (0.03)	8,734,531	14,654 (0.17)
2008	3,672,207	16,785 (0.46)	2,038,611	2,527 (0.12)	1,906,978	868 (0.05)	7,617,796	20,180 (0.2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www. http://www.mest.go.kr)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과 취학 전 학령기의 어린 자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절대다수를 차지

행정자치부의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현황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만 7세~만12세까지의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생은 28,922명, 중학생 학령기인 만13세~만15세의 청소년은 8,082명, 고등학교 학령기인 만 15세~만 18세의 청소년은 6,645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치보다 무려 20000여 명이나 많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정규학교가 아닌 기타 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현재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3) <표 II-2> 참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2010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만 12세와 만15세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각각 4,173명, 2,349명에 달한다 (행정자치부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 현황 참고). 이들 모두가 진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최소한 현재의 2~3배 이상이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Ⅱ-3>과 같다. <표Ⅱ-3>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 약 37.4%에 해당되는 21,685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급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8,972명으로 약 15.5%에 달한다. 즉,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약 52.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Ⅱ-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

행정구역	인원(%)	행정구역	인원(%)
서울특별시	7,500(12.92)	강원	2,590(4.47)
부산광역시	3,057(5.27)	충북	2,584(4.46)
대구광역시	2,254(3.89)	충남	3,421(5.90)
인천광역시	3,054(5.26)	전북	4,283(7.38)
광주광역시	1,608(2.77)	전남	4,902(8.45)
대전광역시	985(1.70)	경북	4,235(7.30)
울산광역시	1,068(1.84)	경남	4,601(7.93)
경기	11,131(19.19)	제주특별자치도	734(1.27)
총계		총계	58,007(1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참고 재작성(www.laiis.go.kr)

4.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 집단의 성격은 크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으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각 집단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 <그림 II-2>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조영달, 2006).



<그림 II-2>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에 속하면서 도시지역에 사는 가정인 ①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고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②의 경우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자녀의 자아 존중감 문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인 ③,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④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경우는 학업 수행에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의 동원이 힘들어 적절한 학업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부모 요인에서도 출신국 별로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선진국인 일본 출신이거나, 부모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필리핀 출신인 경우 외국인 부모에 대한 자긍심 등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전경숙, 2008). 또한 부모가 중국, 일본과 같이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 집단에 비해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인 문제경험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금명자 외4인, 2006). 자아 존중감이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시안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 자녀들이 백인 및 흑인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자녀들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존중감 연구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기존의 다문화 가정 자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자아존중감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된 것이 없으며, 수행된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단일집단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실제 다양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맞이하게 될 학교와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지도방법 및 상담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심도있게,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 중 특히 부모의 외국인 여부나 부모의 국적과 같은 부모와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다문화가정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비교집단으로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 결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2000년 이후에 출생하였다. 2002년 이전의 국제결혼은 주로 외모가 비슷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중국계·일본계 외국인과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주로 중국계 및 일본계 외국인 부모를 둔 귀화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적인 표집을 시도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분포가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 밀집해있고, 서울의 경우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협조를 의뢰하고 난 뒤라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설문지 표집은 경기, 인천, 대전 등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은 총 307명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명과 한국 가정 청소년 161명이었다. 학교급별 조사대상자의 수 및 비율은 다음 <표Ⅲ-1>과 같다.

<표 Ⅲ-1>의 학교급별 구성에서 중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9%인 107명으로 이 중 다문화 가정 자녀가 68명(22.1%), 한국 가정 청소년이 39명(12.7%)였고, 고등학생은 전체의 64.5%인 198명으로 이중 76명(24.8%)이 다문화 가

정 자녀, 122명(39.7%)이 일반 한국 가정 자녀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 2명(0.7%)는 중학생 학령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 학교급별 조사대상자 수 빈도(%)

학교급 \ 구분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 가정 청소년	합계
중학교 재학	68 (22.1)	39 (12.7)	107 (34.9)
고등학교 재학	76 (24.8)	122 (39.7)	198 (64.5)
중학교 학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음	2 (0.7)	-	2 (0.7)
합계	146 (47.6)	161 (52.4)	307 (100)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빈도(%)

거주지 \ 구분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가정 청소년	합계
인 천	80 (26.1)	-	80 (26.1)
대 전	7 (2.3)	-	7 (2.3)
경 기	59 (19.2)	161 (52.4)	220 (71.6)
합 계	146 (47.6)	161 (52.4)	307 (100)

지역별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인천, 대전, 경기 3개 지역에서, 한국 가정 자녀는 경기 한 곳에서 표집하였다. 지역의 크기별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각각 대도시 38명(12.4%), 중소도시 지역 74명(24.1%), 읍면 지역 34명

(11.1%)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은 각각 대도시 44명(14.3%), 중소도시 111명(36.2%), 읍면지역 6명(2%)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지역크기별 분포 빈도(%)

구분 크기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가정 청소년	합계
대도시	38(12.4)	44(14.3)	82(26.7)
중소도시	74(24.1)	111(36.2)	185(60.3)
읍면 지역	34(11.1)	6(2.0)	40(13.0)
집단 합계	146(47.6)	161(52.4)	307(100.0)

<표 III-4>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학력 빈도(%)

구분 학력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가정 자녀	
	아버지최종학력	어머니최종학력	아버지최종학력	어머니최종학력
초졸이하	5(3.4)	3(2.1)	4(2.5)	2(1.3)
중졸	9(6.2)	5(3.4)	8(5.0)	7(4.4)
고졸	46(31.7)	58(39.7)	53(32.9)	84(52.5)
전문대졸	7(4.8)	6(4.1)	6(3.7)	5(3.1)
대졸	43(29.7)	45(30.8)	63(39.1)	44(27.5)
대학원이상	15(10.3)	8(5.5)	16(9.9)	3(1.9)
알지 못함	20(13.8)	21(14.4)	11(6.8)	15(9.4)
합계	145(100.0)	146(100.0)	161(100.0)	160(100.0)

다문화 가정과 일반 한국 가정의 부모의 학력은 <표III-4>와 같다. 응답 중 알지 못함을 제외하면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의 부모의 최종학력에는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가 32.9%,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34.9%,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경우가 32.2%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가 국제결혼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전 출생자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95.9%인 140명이 동북아시아계 황인이며, 부모의 국적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일본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의 국적별(F=3.219, 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산분석 결과 일본계 어머니와 동남아시아계 어머니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어머니보다 학력이 높고 동남아시아

<표 III-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N=146

항목	구분	빈도(%)
부모의 다문화 여부	아버지가 다문화	48(32.9)
	어머니가 다문화	51(34.9)
	부모님 모두 다문화	47(32.2)
본인의 피부색	백인	3(2.1)
	동북아시아계 황인	140(95.9)
	동남아시아계 황인	2(1.4)
	흑인	1(0.7)
아버지의 국적	한국	50(34.2)
	일본	10(6.9)
	중국	83(58.8)
	미국	1(0.7)
	기타(네덜란드)	1(0.7)
어머니의 국적	한국	47(32.2)
	일본	42(28.8)
	중국	53(36.3)
	동남아시아	3(2.1)
	미국	1(0.7)
아버지의 인종	영미계 백인	1(0.7)
	동북아시아계 황인	144(98.6)
	흑인	1(0.7)
어머니의 인종	영미계 백인	2(1.4)
	동북아시아계 황인	140(95.9)

	동남아시아계 황인	3(2.1)
	잘 모름	1(0.7)
아버지의 최종학력	초졸이하	5(3.4)
	중졸	9(6.2)
	고졸	46(31.7)
	전문대졸	7(4.8)
	대졸	43(29.7)
	대학원이상	15(10.3)
	알지 못함	20(13.8)
어머니의 최종학력	초졸이하	3(2.1)
	중졸	5(3.4)
	고졸	58(39.7)
	전문대졸	6(4.1)
	대졸	45(30.8)
	대학원이상	8(5.5)
	알지 못함	21(14.4)
다문화 가정의 형태	결혼이민자	38(26.0)
	이주노동자	2(1.4)
	기타	43(29.5)
	잘 모름	63(43.2)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매우 원활하지 않다	4(2.7)
	원활하지 않다	2(1.4)
	보통이다	13(8.9)
	원활하다	26(17.8)
	매우 원활하다	101(69.2)
출생지	한국	123(84.2)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	20(13.7)
	기타	3(2.1)
체류기간	1년~3년	4(2.7)
	3년~5년	3(2.1)
	5년~10년	11(7.5)
	10년 이상	128(87.7)
의사소통 문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122(83.6)
	일상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학업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3(8.9)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11(7.5)
차별경험	한번도 없다	90(61.6)
	거의 없다	31(21.2)
	보통이다	13(8.9)
	많다	4(2.7)
	매우많다	8(5.5)

계 어머니가 중국계 어머니보다 학력이 높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계 어머니가 분석대상인 124명 중 3명 밖에 안 되므로 동남아시아계 어머니의 학력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형태별 분류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이 38명, 이주노동자 가정이 2명, 기타 혹은 잘 모름이 106가정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학생자신이 자신의 가정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기타 혹은 잘 모름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화교학교에서 조사한 화교 3세대였다. 특히 이들의 경우, 화교인 부모의 국적을 중국 또는 기타, 혹은 한국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조부모 이상부터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가정으로 대대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가 거의 완료되어 일상생활에서 한국인과 별 차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화교 사회를 구성하고 화교학교를 다니며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한국 가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교 3세대 이상의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봐야 할지,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회화가 완료된 일반 한국 가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모의 국적을 중국으로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중국계, 화교(대만계), 조선족 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매우 원활하지 않다, 혹은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명(2.7%), 2명(1.4%)로 매우 소수만이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나이로 보아 이들의 외국인 부모가 대체로 한국에 정착한지 14년 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123명(84.2%)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20명(13.7%), 3명(2.1%)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체류기간 역시 10년 이상 체류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7.7%인 128명에 달했고, 1~3년 이내가 4명(2.7%), 3~5년 이내가 3명(2.1%), 5~10년 이내가 11명(7.5%)로 조사되었다.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122명(83.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학업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13명(8.9%), 일상생활에서도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11명(7.5%)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16.4%에 달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없었으나, 이들 대다수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임을 감안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비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90명(61.6%), ‘거의 없다’는 31명(21.2%), ‘보통이다’는 13명(8.9%), ‘많다’가 4명(2.7%), ‘매우 많다’가 8명(5.5%)를 차지하였다. 차별 경험이 많거나, 매우 많은 경우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 1명,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 3명,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중국인인 경우 7명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비교적 차별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다. 오히려 외모상 다문화 가정 자녀임이 드러나는 백인계, 흑인계, 동남아시아계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전국의 교육청과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 공개만을 허용한 4개 교육청

을 제외하고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 재학 현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설문지 배부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적고 적은 수의 학생이 여러 학교에 분산되어 있어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는 시민단체나 학교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협조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연구 과정 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여 교사들이 그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협조에 응한 학교의 다문화 담당 교사와 시민단체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중고등학교 5개교와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1곳, 화교학교 1개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경기도 용인, 수원, 하남의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하남의 중학교 1개교에서 한 학급씩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3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3부였으며, 이중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설문지가 159부, 비교집단인 일반 한국가정 중고등학생의 설문지가 164부 였으나 이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16부를 제외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설문지 146부와 한국 가정 자녀의 설문지 161부, 총 307부가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2. 연구변인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한국 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영역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맞이하게 될 일선 중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비교하는 영역이다. 다양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시키지 않고 입체적·다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관한 제언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시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한 영역이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희화와 김경연(1996)의 한국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김희화(1988)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영역 및 신뢰도는 다음 <표 III-6>과 같다.

이 척도는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의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5번 문항이 설문구성과정에서 빠져 제외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범위는 48~2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한국의 청소년에게 중요한 자아상을 반영하고 있고 감정적 요소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⁴⁾

4) 이 도구의 원 제작자인 김희화(1996)가 검사한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자아존중감 척도의 영역 및 신뢰도

하위변인	정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자신의 학업수행 능력과 성적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 신감 및 자아가치	3, 8, 16, 22, 23, 33, 35, 37, 44, 45	.87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또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 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지와 친구 사귀는 능력과 관련한 자 아가치	10, 21, 29, 31, 34, 38, 39, 40, 46	.81
가정적 자아존중감	가족원과의 생활속에서 사랑받 고 인정받으며, 가족원과의 생 활을 행복하게 여기는 정도와 관련한 자아가치	1, 4, 7, 9, 24, 48	.84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키, 몸무게, 피부색 등 신체외모 전반과 관련한 자아가치	12, 18, 19, 20, 27, 30, 42	.78
성격적 자아존중감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한 자아가치	2, 11, 13, 15, 28, 49	.81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건강 및 운동능력과 관련한 자 아가치	5, 6, 17, 26, 41, 43	.74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교사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평등 하게 사랑받는 정도와 관련한 자아가치	14, 32, 36, 47	.86

2) 독립변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영역 및 변인은 <표 III-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7> 연구내용의 영역 및 측정변인

변수의 범주	변수	변수값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거주지역의 형태	①도시지역 ②읍면지역			
	학교급	①중학생 ②고등학생 ③중학교 연령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음 ④고등학교 연령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음			
		자아상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상태		
		인종*	①백인 ②동북아시아계 황인 ③동남아시아계 황인 ④흑인 ⑤잘 모름		
			부모의 국적*	①한국 ②일본 ③중국 ④필리핀 ⑤베트남 ⑥몽골 ⑦태국 ⑧남부아시아 ⑨중앙아시아 ⑩인도네시아 ⑪유럽 ⑫러시아 ⑬미국 ⑭기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	
	2. 가정환경요인			아버지의 양육태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어머니의 양육태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총 수입		50만원 이하~4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로 질문	

	다문화 가정의 형태*	①결혼이민자 ②이주노동자 ③기타 ④잘 모름
3. 학교환경요인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측정 ①아주 못하는 편이다. ②못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잘하는 편이다. ⑤아주 잘하는 편이다.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의 개방성, 친밀성 측정
	교사와의 관계	동료애, 친밀감, 또래관계에서의 만족감 측정
	또래와의 관계	부모, 교사, 친구 등 사회적 지지원들로부터의 지원 정도 측정 ①한번도 없다. ②거의 없다 ③보통이다. ④많다. ⑤매우 많다.
	사회적 지지	①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②일상생활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나 학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③일상생활에서 가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④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4. 사회환경요인	차별 경험*	
	의사소통문제*	

*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변수

① 인구사회학적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적인 배경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

의 경우 인종, 학교급, 거주지역에 대해 질문하였고, 한국 가정 청소년에게는 학교급과 거주지역을 질문하였다. 인종에 대해서는 백인, 동북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흑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학교급은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고등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표집된 연구대상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중학생 학령 2명으로 수가 너무 적어 중학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읍면지역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자아상은 김경미(2004)가 사용한 도구를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5~25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3이다.

② 가정환경요인

다문화가정의 가정환경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국적, 부모의 인종,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총 수입,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를 질문하였고, 한국 가정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국적, 부모의 인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부모의 국적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서비스⁵⁾의 2008년 4월 30일 외국인주민조사현황 참고로 하여,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유럽, 러시아, 미국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만계와 화교도 중국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부모의 인종은 영미계 백인, 인도계 및 이슬람계 백인, 동북아시아계 황인, 동남아시아계 황인, 흑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총수입은 50만원 이하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9단계로 분류하여 질

5) <http://www.laiis.go.kr>

문하였다.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김희화(1998)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정유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한 도구이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20~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뤄짐을 나타내며, 신뢰도 검증 결과 이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로 매우 높았으며, 원척도의 cronbach's α 값도 1차에서 .90, 2차에서 .91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표 III-8>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구성 내용과 관련 문항

태도영역	성장촉진적	성장억제적	문항수	cronbach's α 부(모)
수용-거부	수용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한다.	거부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한다.	10	.84 (.85)
자율-통제	자율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통제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한다.	12	.85 (.85)
성취압력	비과잉 항상 좋은 성적을 취하기만 기대하지는 않는다.	과잉 항상 성공하기만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한다.	10	.86 (.85)
전체				.90 (.91)

부모의 양육태도는 박순희(2003)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정(1984)이 제작한 것 이동택(1990)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 압력의 3가지 요인을 33문항으로 검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조사한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성취압력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적인 성취압력으로 채점하며 자료 코딩시에는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과잉적인 성취압력으로 해석한다. 원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7번 문항을 제외하고 32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32~160점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구성과 관련문항 및 신뢰도는 <표 III-8>과 같다.

③ 학교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한국 가정 자녀 동일하게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가장 어려운 과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김희화(1998)의 학교생활 만족도 검사 도구와 김경미(2004)의 학교생활적응도구를 참고하여 수정제작 하였다. 9문항으로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습의 즐거움, 소외감, 만족감 등에 관한 질문으로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9~45점이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은 .87로 상당히 신뢰할만한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취도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한지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김경미(2004)의 학교생활적응도구를 참고하여 수정제작 하였다. 총 4문항으로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4~16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또래와의 관계는 김희화(1998)의 교우관계 친밀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조직망 관계 검사의 10개 영역 중 동료애, 친밀감, 만족감을 측정하는 총 9문항을 김수민(198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9~45점이다. 신뢰도는 .90이며, 원척도의 신뢰도 역시 1차에서 .86, 2차에서 .91로 본 연구와 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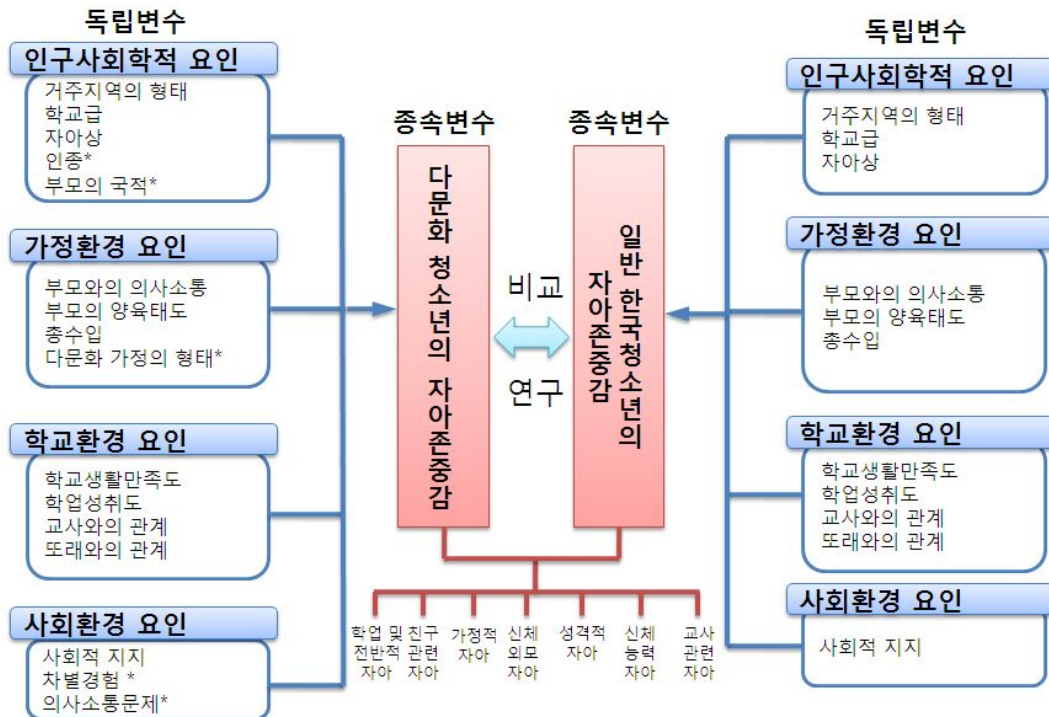
④ 사회환경 요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출생지, 체류기간, 사회적 지지, 차별 경험, 의사소통문제를 설정하였고, 한국 가정 자녀의 사회환경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였다.

출생지는 한국,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 기타로 분류하여 질문하였고, 차별 경험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의 경험의 빈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의사소통의 문제는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학업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의 4단계로 나누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김경미(2004)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미라(2000)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안한 도구로서 김경미가 요인분석으로 문항을 축소하여 사용한 것이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응답범주는 1~5점이고, 척도의 점수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6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그림 Ⅲ-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Ⅲ-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한국 가정 자녀의 경우 거주지역의 형태와 학교급, 자아상 등을 확인하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인종과 부모의 국적을 추가하였다.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한국 가정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수입을 살펴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의 형태를 추가하였으며, 학교환경 요인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또

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환경 요인에서는 한국 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차별경험과 의사소통 문제를 추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하고, 독립변수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분석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로 비교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3. 자료처리 및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기술적 통계와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위해서 SPSS 12.0.01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의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국적과 인종, 피부색, 의사소통 여부, 출생지, 체류기간, 의사소통 문제와 차별 경험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문제 1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들 간에 t-test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법(stepwise)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로 연구문제 2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간에 다양한 가정적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의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인 경우 LSD, 이분산일 경우 Dunnett C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IV-1>과 같다.

<표 IV-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항목	구분	N	M	SD	F	T
학업 및 전반적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30.77	7.02	2.240	.526
	한국 가정 청소년	161	30.37	6.11		
친구관련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33.32	6.00	.009	2.412*
	한국 가정 청소년	161	31.61	6.40		
가정적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22.47	4.75	.050	.787
	한국 가정 청소년	161	22.06	4.38		
신체외모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22.50	4.75	.072	.789
	한국 가정 청소년	161	22.13	4.38		
성격적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18.23	5.07	.835	-2.137*
	한국 가정 청소년	161	19.40	4.53		
신체능력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18.97	4.41	.016	-.585
	한국 가정 청소년	161	19.25	4.24		
교사관련 자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13.23	4.07	8.992	-1.176
	한국 가정 청소년	161	13.72	3.06		
자아존중감 전체	다문화 가정 청소년	146	159.49	27.13	1.848	.321
	한국 가정 청소년	161	158.55	24.20		

* P<.05 ** P<.01 ***P<.001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친구관련 자아와 성격적 자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자아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친밀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적 자아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전체적으로는 한국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자아존중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 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2>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종속 변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 가정 청소년		
	독립변인	ΔR^2	F	독립변인	ΔR^2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	교사와의 관계(RT) 학업성취도(SA) 아버지양육태도(수용)(FNs) 어머니양육태도(성취)(MNa) 의사소통문제(C)	.500	29.600***	교사와의 관계(RT) 아버지양육태도(수용)(FNs) 학업성취도(SA) 자아상(SI)	.477	29.836***
	사회적 지지(SS) 또래와의 관계(RF) 자아상(SI) 차별경험(D) 아버지양육태도(자율)(FNc) 부모와의 의사소통(PC)	.534	28.686***	사회적 지지(SS) 또래와의 관계(RF) 자아상(SI) 학교생활만족도(SL)	.667	80.014***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 가정 청소년			
종속 변인	독립변인	ΔR^2	F	독립변인	ΔR^2	F	
가정적 자아	부모와의 의사소통(PC)	.620	78.909***	부모와의 의사소통(PC)	.626	45.034***	부모와의 의사소통(PC)
	교사와의 관계(RT)			교사와의 관계(RT)			
사회적 지지(SS)	사회적 지지(SS)						
아버지양육태도(수용)(FNs)	아버지양육태도(자율)(FNc)						
어머니양육태도(성취)(MNa)							
신체 외모 자아	자아상(SI)	.596	71.371***	자아상(SI)			.525
	교사와의 관계(RT)				사회적 지지(SS)		
성격적 자아	부모와의 의사소통(PC)	.247	12.700***	사회적 지지(SS)	.110	10.756***	사회적 지지(SS)
	학교생활만족도(SL)			어머니양육태도(자율)(MNc)			
	또래와의 관계(RF)						
신체 능력 자아	자아상(SI)	.253	25.247***	자아상(SI)	.336	27.699***	자아상(SI)
	교사와의 관계(RT)						학교생활만족도(SL)
교사 관련 자아	교사와의 관계(RT)	.626	80.896***	교사와의 관계(RT)	.389	51.381***	교사와의 관계(RT)
	사회적 지지(SS)			사회적 지지(SS)			
	학교생활만족도(SL)						
자아 존중감 전체	교사와의 관계(RT)	.639	51.553***	교사와의 관계(RT)	.693	51.979***	교사와의 관계(RT)
	자아상(SI)			자아상(SI)			
	학교생활만족도(SL)			학교생활만족도(SL)			
	또래와의 관계(RF)			또래와의 관계(RF)			
	부모와의 의사소통(PC)			사회적 지지(SS)			
아버지양육태도(수용)(FNs)	아버지양육태도(수용)(FNs)						
어머니양육태도(자율)(MNc)	어머니양육태도(자율)(MNc)						

주1. * P<.05 ** P<.01 ***P<.001

주2. 회귀계수와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공통 요소를 위주로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회귀 분석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3.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공통요소는 구분하기 쉽도록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및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beta=.467, t=6.828^{***}$), 아버지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244, t=3.562^{***}$), 학업성취도($\beta=.213, t=3.484^{***}$), 의사소통문제($\beta=-.123, t=-2.058^*$), 어머니의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beta=.213, t=3.534^{***}$)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50%였으며, F값은 29.6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값은 2.075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교사에게 인정받고 있을수록, 아버지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이해와 격려, 칭찬을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성적에 관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수록,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을수록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 = 4.137 + 0.776RT + 1.528SA + 0.253FNs + 0.198MNa - 1.493C$$

그에 비해 한국 가정 청소년은 학업성취도($\beta=.264, t=4.316^{***}$), 자아상($\beta=.237, t=3.682^{***}$), 교사와의 관계($\beta=.209, t=2.940^{**}$), 학교생활만족도($\beta=.204, t=2.823^{**}$), 아버지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152, t=2.372^*$)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47.7%였으며, F값은 29.83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913으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가정 청소년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아상이 긍정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애정과 관심

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이해와 격려, 칭찬을 많이 할수록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 가정 청소년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 = 4.291 + 0.227\text{SL} + 0.351\text{SI} + 1.799\text{SA} + 0.405\text{RT} + 0.129\text{FNs}$$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beta=.382$, $t=4.058^{***}$), 사회적 지지($\beta=.335$, $t=2.696^{***}$),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221$, $t=2.798^{**}$),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beta=-.211$, $t=-2.996^{**}$), 차별경험($\beta=-.178$, $t=-2.446^{**}$), 자아상($\beta=.146$, $t=5.98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53.4%였으며, F값은 28.258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768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이 적고,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지시, 간섭, 통제가 많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친구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친구관계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 = 8.455 + 0.318\text{SS} + 0.382\text{RF} + 0.202\text{SI} - 0.965\text{D} - 0.160\text{FNc} + 0.100\text{PC}$$

한국가정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beta=.371$, $t=6.787$), 자아상($\beta=.337$, $t=6.879^{***}$), 사회적 지지($\beta=.273$, $t=4.688^{***}$), 학교생활만족도($\beta=.148$, $t=2.67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6.7%였으

며, F값은 80.01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739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가정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사회적으로 지지를 느낄수록,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이 높을수록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 가정 청소년의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 = -3.219 + 0.388RF + 0.523SI + 0.316SS + 0.172SL$$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571$, $t=8.706^{***}$), 사회적 지지($\beta=.202$, $t=2.836^{**}$), 교사와의 관계($\beta=.144$, $t=2.323^{*}$)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2.0%였으며, F값은 78.90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681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 = 1.700 + 0.205PC + 0.152SS + 0.162RT$$

한국 가정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329$, $t=4.663^{***}$), 아버지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240$, $t=3.413^{***}$), 사회적 지지($\beta=.182$, $t=2.591^{*}$),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beta=.122$, $t=2.008^{*}$), 교사와의 관계($\beta=.121$, $t=2.170^{*}$), 어머니의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beta=-.105$, $t=-1.984^{*}$) 등이 가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2.6%였으며, F값은 45.03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2.224로 자기상관성

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가정 청소년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특히 아버지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고 이해와 격려를 해주고,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지 않고, 어머니는 성적에 대해 억압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1.659+0.118PC+0.145FNs+0.144SS+0.66FNc+0.167RT-0.055MNa$$

신체외모 자아존중감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자아상($B=.572$, $t=10.573^{**}$), 교사와의 관계($B=.366$, $t=6.180^{***}$), 부모와의 의사소통($B=.122$, $t=2.082^{*}$)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59.6%였으며, F값은 71.31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1$) Durbin-Watson 값은 1.776으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며,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신체외모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2.597+0.705SI+0.464RT+0.049PC$$

한국 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 자아존중감은 자아상($B=.643$, $t=11.187^{***}$)과 사회적 지지($B=.200$, $t=3.485^{***}$)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52.5%였으며, F값은 88.19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1$) Durbin-Watson 값은 1.752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가정 청소년은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신체외모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 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 = 3.406 + 0.850SI + 0.197SS$$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격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만족도($\beta=.362$, $t=4.466^{***}$), 또래와의 관계($\beta=-.219$, $t=-2.952^{**}$), 자아상($\beta=.191$, $t=2.612^{**}$),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171$, $t=2.14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4.7%였으며, F값은 12.7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1$) Durbin-Watson 값은 1.684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자아상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거주지역이 작은 규모의 지역일수록 성격적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는 성격적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격적 자아존중감} \\ = 8.953 + 0.289SL - 0.185RF + 0.223SI + 0.065PC$$

한국 가정 청소년의 성격적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beta=.237$, $t=2.880^{**}$)와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beta=.175$, $t=2.124^{*}$)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1%였으며, F값은 10.75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1$) Durbin-Watson 값은 2.332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가정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고 강요하지 않을수록 성격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 가정 청소년의 성격적 자아존중감

$$=8.168+0.194SS+0.111MNC$$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신체 능력 자아존중감은 교사와의 관계($\beta=.459$, $t=6.244^{***}$), 자아상($\beta=.158$, $t=2.151^*$)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5.3%였으며, F값은 25.247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880으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교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신체능력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10.463+0.480RT+0.161SI$$

한국 가정 청소년의 신체능력 자아존중감은 자아상($\beta=.342$, $t=5.003^{***}$), 학교생활만족도($\beta=.287$, $t=3.916^{***}$), 또래와의 관계($\beta=.165$, $t=2.310^*$)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3.6%였으며, F값은 27.69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923으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가정 청소년은 자아상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신체능력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 가정 청소년의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4.426+0.351SI+0.221SL+0.114RF$$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교사관련 자아존중감은 교사와의 관계($\beta=.577$, $t=7.928^{***}$), 사회적 지지($\beta=.181$, $t=2.903^{**}$), 학교생활만족도($\beta=.142$, $t=2.028^*$)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2.6%였으며, F값은 80.89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885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교사관련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 = -0.157 + 0.556RT + 0.117SS + 0.091SL$$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와의 관계($\beta = .339$, $t = 5.633^{***}$)와 사회적 지지($\beta = .333$, $t = 4.695^{***}$)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8.9%였으며, F값은 51.38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2.073으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가정 청소년은 교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교사관련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 가정 청소년의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 = 2.769 + 0.386RT + 0.184SS$$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은 교사와의 관계($\beta = .394$, $t = 5.629^{***}$),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 = .245$, $t = 4.339^{***}$), 자아상($\beta = .261$, $t = 5.077^{**}$), 학교생활만족도($\beta = .191$, $t = 2.751^{**}$), 또래와의 관계($\beta = .127$, $t = 2.47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3.9%였으며, F값은 51.55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957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개방적이

며,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 = 26.549 + 2.530RT + 0.500PC + 1.626SI + 0.817SL + 0.575RF$$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beta=.186$, $t=2.670^*$), 자아상($\beta=.355$, $t=7.294^{***}$), 학교생활만족도($\beta=.199$, $t=3.532^{***}$), 아버지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148$, $t=2.573^*$), 또래와의 관계($\beta=.129$, $t=2.452^*$),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beta=.122$, $t=2.513^*$), 교사와의 관계($\beta=.122$, $t=2.190^*$)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9.3%였으며, F값은 51.97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Durbin-Watson 값은 1.929로 자기상관성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가정 청소년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해주고, 어머니는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고 강요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 가정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 = 14.914 + 0.812SS + 2.081SI + 0.872SL + 0.496FNs + 0.511RF + 0.413MNC \\ + 0.936RT$$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집단별 자아존중감 비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집단별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외국인 여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다. 본인의 피부색, 부모의 인종, 출생지, 체류기간 등의 다른 조건은 연구대상자 집단이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연구결과에 신빙성이 없을 듯하여 비교적 집단이 고르게 나타나는 조건들만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1)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비교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의 3가지 경우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확인·비교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성격적 자아존중감,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 신체능력 자아존중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보다 신체외모 관련 자아(F=4.020, P<.05), 성격적 자아(F=3.555, P<.05), 전체적인 자아존중감(F=4.986, P<.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보다 교사관련 자아존중감(F=9.252,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친구관련 자아존중감(F=3.198, P<.0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외모, 키, 몸무게, 피부색 등 전반적인 외모에 대

<표 IV-3>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항목	구분	N	M	SD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30.60	6.44	1.318
	어머니가 외국인	51	31.94	6.61	
	부모 모두 외국인	47	29.66	7.91	
	합계	146	30.77	7.02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34.04	5.48	3.198*
	어머니가 외국인	51	34.29	5.69	
	부모 모두 외국인	47	31.53	6.55	
	합계	146	33.32	6.00	
가정적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22.06	4.52	2.789
	어머니가 외국인	51	23.69	4.47	
	부모 모두 외국인	47	21.55	5.09	
	합계	146	22.47	4.75	
신체외모관련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22.38	5.75	4.020*
	어머니가 외국인	51	24.00	4.37	
	부모 모두 외국인	46	21.00	5.57	
	합계	145	22.50	5.35	
성격적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18.08	5.22	3.555*
	어머니가 외국인	51	19.59	4.36	
	부모 모두 외국인	46	16.91	5.35	
	합계	145	18.23	5.07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19.41	4.51	.836
	어머니가 외국인	51	19.16	4.16	
	부모 모두 외국인	47	18.30	4.58	
	합계	146	18.97	4.41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12.54	4.13	9.252***
	어머니가 외국인	51	15.08	3.41	
	부모 모두 외국인	47	11.94	4.03	
	합계	146	13.23	4.07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아버지가 외국인	48	159.13	25.97	4.986**
	어머니가 외국인	51	167.75	24.56	
	부모 모두 외국인	47	150.89	28.69	
	합계	146	159.49	27.13	

* P<.05 ** P<.01 ***P<.001

해 긍정적이며,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이 교사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특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사례수 1인 미국과 기타(네덜란드)를 제외하고, 편모가정 1인을 제외한 143명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아버지 국적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항목	구분	N	M	SD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한국	50	32.10	6.58	4.258*
	일본	10	34.90	8.70	
	중국	83	29.45	6.85	
	합계	143	30.76	7.05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50	34.36	5.72	3.894*
	일본	10	36.80	5.35	
	중국	82	32.23	6.11	
	합계	142	33.29	6.05	
가정적 자아존중감	한국	50	23.78	4.47	6.082**
	일본	10	25.20	3.77	
	중국	82	21.37	4.80	
	합계	142	22.48	4.79	
신체외모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50	24.10	4.35	6.341**
	일본	10	25.00	5.23	
	중국	83	21.16	5.61	
	합계	143	22.45	5.37	
성격적 자아존중감	한국	50	19.67	4.38	7.053***
	일본	10	21.30	6.13	
	중국	83	16.93	5.02	
	합계	143	18.19	5.09	

항목	구분	N	M	SD	F
신체능력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50	19.16	4.21	2.263
	일본	10	21.50	4.30	
	중국	83	18.46	4.50	
	합계	143	18.92	4.43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50	15.14	3.42	18.770***
	일본	10	16.60	3.10	
	중국	83	11.64	3.87	
	합계	143	13.21	4.11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한국	50	168.30	24.48	11.007***
	일본	10	181.30	29.52	
	중국	83	151.23	25.59	
	합계	143	159.30	27.22	

* P<.05 ** P<.01 ***P<.001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능력관련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모든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존중감($F=4.258, P<0.05$), 친구관련 자아존중감($F=3.894, P<0.05$), 가정적 자아존중감($F=6.082, P<0.01$), 신체외모 관련 자아존중감($F=6.341, P<0.01$), 성격적 자아존중감($F=7.053, P<0.001$), 교사관련 자아존중감($F=18.770, P<0.001$), 전체적인 자아존중감($F=11.007, P<0.001$) 등 모든 자아존중감에서 중국계 아버지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일본계 아버지나 한국계 아버지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어머니의 국적별 자아존중감 비교

어머니 국적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사례수 1인 미국을 제외한 145명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표IV-5>와 같다.

<표 IV-5> 어머니 국적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항목	구분	N	M	SD	F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한국	47	30.68	6.49	1.562
	일본	42	31.83	6.81	
	중국	53	29.57	7.61	
	동남아시아	3	36.67	3.79	
	합계	145	30.73	7.03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47	34.11	5.52	2.337
	일본	42	34.10	5.78	
	중국	53	31.72	6.44	
	동남아시아	3	37.67	4.73	
	합계	145	33.30	6.02	
가정적 자아존중감	한국	47	22.15	4.53	1.232
	일본	42	23.52	4.61	
	중국	53	21.83	5.08	
	동남아시아	3	24.33	4.04	
	합계	145	22.48	4.77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한국	47	22.51	5.73	4.378**
	일본	42	24.26	3.72	
	중국	53	20.75	5.68	
	동남아시아	3	27.00	3.61	
	합계	145	22.47	5.36	
성격적 자아존중감	한국	47	18.15	5.25	2.929*
	일본	42	19.92	4.34	
	중국	53	16.89	5.26	
	동남아시아	3	18.00	1.73	
	합계	145	18.20	5.07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한국	47	19.45	4.56	1.437
	일본	42	19.48	4.20	
	중국	53	18.00	4.50	
	동남아시아	3	21.00	1.00	
	합계	145	18.96	4.43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한국	47	4.16	4.16	6.431***
	일본	42	3.02	3.02	
	중국	53	4.17	4.17	
	동남아시아	3	4.04	4.04	
	합계	145	4.08	4.08	
전체적인 자아존중감	한국	47	159.62	26.03	4.378**
	일본	42	168.40	24.25	
	중국	53	150.77	28.35	
	동남아시아	3	180.00	17.32	
	합계	145	159.35	27.17	

* P<.05 ** P<.01 ***P<.00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신체외모관련 자아존중감, 성격적 자아존중감,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그리고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일본계나 동남아시아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신체외모관련 자아존중감($F=4.378, P<0.01$)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일본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성격적 자아존중감($F=2.929, P<0.05$)과 전체적인 자아존중감($F=4.378, P<0.01$)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관련 자아존중감($F=6.431, P<0.001$)에서는 한국계 어머니나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일본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외모, 키, 몸무게 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일본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자신의 성격이 원만하고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사로부터도 전반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아존중감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상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과 차이가 있는 동남아시아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오히려 외모 상 차이가 없는 중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한국계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신체외모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 표준편차가 0이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나, 조사대상이 3명 밖에 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와 인천, 대전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일부 문항에 대하여는 일반 한국가정 청소년 161명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비교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7가지 하위요소 중 친구관련 자아존중감과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만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고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한국 가정 청소년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통해 보듯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별경험이나 의사소통의 문제와 같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 문제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며 그로인해 학교중단의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전경숙, 2008)와 관련하여 향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교사와의 관계

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신체 외모 자아존중감, 신체 능력 자아존중감, 교사관련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전체에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또래와의 관계가 성격적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은 한국가정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도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외모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조혜영 외, 2007)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사회화가 완료되었고 따라서 현재 중고등 학령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혹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강의 현상만을 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의사소통 문제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사 및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이해, 배려가 다문

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별 경험이나 의사소통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간에 집단별로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한 것은 이번 조사결과 얻어진 커다란 발견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나, 부모 모두 외국인이나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신체외모 자아존중감과 성격적 자아존중감,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특히 친구관련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국적별로도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본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중국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일본계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일반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건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학교 관계자와 연구자들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집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령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한국 가정의 자아존중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차별이나 의사소통 문제와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만의 경험과 교사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 전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국적에 따라, 또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편이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오히려 한국 가정 청소년보다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다소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이상의 두 가지 결론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수용하는 학교 및 교육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경험

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현재 중·고등학생인 다문화 가정 자녀보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현재 초등학생인 다문화 가정 자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놀림/차별 및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 중학생은 11.1%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은 20.2%로 약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전경숙, 2008). 따라서 향후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한다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학교 당국과 교육청 등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을 신장시키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효과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부 때 다문화 관련 수업을 받은 교사가 2.2%, 다문화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가 1.4%에 불과했다(최충욱, 모경환, 2007).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다문화 관련 연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지도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문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처음 접하면서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조혜영 외, 2007). 따라서 실제 학교 생활에서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초빙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케이스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도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생의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이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경에 따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3,395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2010년에 중학교에 새로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4,000명이 넘는다. 또한 이 숫자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미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많은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형편이 다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가 적어 아직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문제는 시급한 현상이 아니고, 10여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가 완료되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형편이다. 학교 수준 뿐만 아니라 교육청 수준에서도 다문화 담당 장학사는 초·중·고등학교에만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당장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중·고등학교령기의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급변하고 일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철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중·고등학교령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매우 많은 것이다. 특히 학

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약 70%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과정에서 접촉한 다문화 가정 관련 시민단체나 다문화센터 등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다문화 가정 자녀와 그들의 외국인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령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중·고등학생 이상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그 수가 매우 적고 또 이미 한국 사회에 거의 완벽히 사회화 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 시민단체를 찾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찾아오지 않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시민단체를 찾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최근 광주광역시에 다문화 대안학교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정말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중·고등학령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일 것이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 대안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대안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사회차원의 대안교육이 절실하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 일부지역의 중·고등학교과 대전의 시민단체를 통해 표집된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이다. 그리고 표집된 연구 대상들이 대부분 일본계, 중국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었다. 표집된 지역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모의 국적도 다양한 국적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배제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를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표집하려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명 밖에 표집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한국 내 전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국가적 특성 및 재학·비재학 청소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표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 분류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19가지로 분류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계를 한족, 조선족, 대만계, 화교 2~3세대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중국계라 하더라도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2000년 이전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동양계이고 종교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2000년

이후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는 다른 경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년 후에 2000년 이후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대거 진학하는 시점에 다시 연구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본 연구와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국적이나 외국인 여부와 같은 부모 요인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지역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교도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충실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집단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집단별로 다양한 자아존중감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일탈적인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열린 자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 및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여 개방적인 자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하여 그들을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지도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William B. Stanley (2005). 21세기 사회과 교육 연구의 핵심 쟁점들. 사회과 교육 연구 모임 역. 교육과학사
- 금미현(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금명자 외(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아름기획
- 김경미(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김선미(2000).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 연구, 4호
- 김세서리아(2007). '친친(親親)'에 근거한 한국의 다문화적 가족 상황과 다문화주의-한국의 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45-155
- 김연권 외(2007). 경기도 교육청 직무연수자료집
- 김용신(2007). 다문화 정치교육의 논리와 방법:탐색적 접근. 사회과교육, 제46권 4호
- 김이선(2007).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사학회·국제이해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3호. pp.95-129
- 김창곤(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제1호 pp.91-107
- 김해성 외(2007). 경기도다문화교육포럼 자료집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3호, pp.63-88
- 김희화(1996).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5호, pp.1-12
- 김희화(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2호, pp.47-60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모경환, 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 39권 3호
- 모경환(2007).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결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박남수(2000).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 교육**, 33호
- 박순희(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진희 외(1997). 자아존중감이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실태조사, **환경교육**, 제10권 제2호, pp.63-74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대한철학회논문집**, 제 107권 pp.1-24
- 송미경 외(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서보미디어
- 송인섭(2004).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제17권 제2호 pp.1-25
- 윤연정(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2호 pp.105-122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63-293
- 이순형(2007). 농촌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3-27
- 이홍표 외(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29-344
- 장혜숙(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성남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실태 조사 :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1편
- 전숙자(2007). 고등사고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이해. **교육과학사**
- 정기원(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165-190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127-166
- 정희욱(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443-458
- 정희태(2008).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8권 제2호, pp.253-283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제2호. pp.105-134
- 진미정 외(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7호, pp.141-152

한세영(2005).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의 최근 국내연구동향과 전망, **생활과 학연구논총**, 제9권 제1호, pp.31-43

황범주(2007).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황상심 외(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제17권 1호 pp.81-10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nforming the self esteem of the offspring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in their adolescent period and in the center of a major change in their self esteem.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nformation lies in helping those junior. senior high schools, to which the childre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ll enter, to use it for guiding their living and studying. For this, we compared the self esteem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at of the adolescents from Korean families, and then compared the self esteem again by group classified by the background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tal 307 juni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146 of which 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Gyeonggi, Incheon, Daejeon and 161 of which are from Korean families in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for questionnaire and spss 12.0.1 was applied for statistic analysis. The major summarized results are as below.

1. There wasn't a big difference in self esteem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and adolescents from Korean families in general. Partially friends involved self esteem was even higher, and personality involved self esteem was a little lower. The relationship with peer group has negative influence on personality involved self esteem . It seems the teenager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make much of peer relationship more than the teenagers from Korean families and yet they feel fatigue in keeping such relationship.

2. The self esteems of adolesc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were affected by different variables. Adolesc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were influenced by distinctive experiences such as being treated discriminatingly or communication problems, especially, th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m. Accordingly, the self esteem of the adolescents from the multi cultural famili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adolescents from Korean families, and the role of their teachers are very important for the education of the adolescents from the multi families.

3. The self esteem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showed various levels depending upon whether their parents are foreigners or not, and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Their self esteem was lower when their parents were both foreigners compared with their self esteem when one of their parents was foreigner in general. Besides, the self esteem of the teenager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under Chinese parents was lower than under Japanese parents. The self esteem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under Japanese parents was even higher than that of the adolescents from Korean families. That is, the adolescents group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due to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or whether their parents are foreigners or not which indicates the necessity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m.

- 부 록 -

1. 회귀분석 결과

(1) 다문화 가정 청소년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VIF	ΔR ²	F	Durbin- Watson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	.467	6.828***	1.339	.500	29.600***	2.075
	학업성취도	.213	3.484***	1.067			
	아버지의 양육태도(수용)	.244	3.562***	1.337			
	어머니의 양육태도(성취)	.213	3.534***	1.041			
	의사소통문제	-.123	-2.058*	1.026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335	2.696***	2.090	.534	28.285***	1.768
	또래와의 관계	.382	4.058***	1.247			
	자아상	.146	5.984*	1.092			
	차별경험	-.178	2.446**	1.085			
	아버지의 양육태도(자율)	-.211	-2.996**	1.520			
	부모와의 의사소통	.221	2.798**	1.905			
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571	8.706***	1.622	.620	78.909***	1.681
	사회적 지지	.202	2.836**	1.911			
	교사와의 관계	.144	2.323*	1.442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자아상	.572	10.573***	1.037	.596	71.317***	1.776
	교사와의 관계	.366	6.180***	1.241			
	부모와의 의사소통	.122	2.082*	1.206			
성격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362	4.466***	1.245	.247	12.700***	1.684
	또래와의 관계	-.219	-2.951**	1.046			
	자아상	.191	2.612**	1.014			
	부모와의 의사소통	.171	2.141*	1.208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	.459	6.244***	1.037	.253	25.247***	1.880
	자아상	.158	2.151*	1.037			
교사관련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	.577	7.928***	2.024	.626	80.896***	1.885
	사회적 지지	.181	2.903**	1.486			
	학교생활만족도	.142	2.028*	1.883			

자아 존중감 전체	교사와의 관계	.394	5.629***	1.939			
	부모와의 의사소통	.245	4.339***	1.257			
	자아상	.261	5.077***	1.042	.639	51.553***	1.957
	학교생활만족도	.191	2.751**	1.904			
	또래와의 관계	.127	2.471*	1.048			

* P<.05 ** P<.01 ***P<.001

(2) 한국 가정 청소년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VIF	ΔR ²	F	Durbin- Watson
학업 및 전반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204	2.823**	1.580			
	자아상	.237	3.682***	1.254			
	학업성취도	.264	4.316***	1.129	.477	29.836***	1.913
	교사와의 관계	.209	2.940**	1.534			
	아버지의 양육태도(수용)	.152	2.372*	1.236			
친구관련 자아존중감	또래와의 관계	.371	6.787***	1.415			
	자아상	.337	6.879***	1.140	.667	80.014***	1.739
	사회적 지지	.273	4.688***	1.612			
	학교생활만족도	.148	2.678**	1.442			
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329	4.663***	2.109			
	아버지의 양육태도(수용)	.240	3.413***	2.082			
	사회적 지지	.182	2.591*	2.087	.626	45.034***	2.224
	아버지의 양육태도(자율)	.122	2.008*	1.562			
	교사와의 관계	.121	2.170*	1.304			
	어머니의 양육태도(성취)	-.105	-1.984*	1.180			
신체외모 자아존중감	자아상	.643	11.187**	1.098	.525	88.197***	1.752
	사회적 지지	.200	3.485***	1.098			
성격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237	2.880**	1.024	.110	10.756***	2.332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	.175	2.124*	1.204			
신체능력 자아존중감	자아상	.342	5.003***	1.114	.336	27.699***	1.923
	학교생활만족도	.287	3.916***	1.278			

	또래와의 관계	.165	2.310*	1.213			
교사관련	교사와의 관계	.339	5.633***	1.298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333	4.695***	1.298	.389	51.381***	2.073
	사회적 지지	.186	2.670**	2.497			
	자아상	.355	7.294***	1.220			
	학교생활만족도	.199	3.532***	1.699			
자아 존중감 전체	아버지의 양육태도(수용)	.148	2.573*	1.699	.693	51.979***	1.929
	또래와의 관계	.129	2.452*	1.430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	.122	2.513*	1.221			
	교사와의 관계	.122	2.190*	1.608			

* P<.05 ** P<.01 ***P<.001

2. 사후검증 결과

1)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비교

종속변수	(I)외국인 부모	(J)외국인 부모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교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1.33701	.344	LSD
		부모 모두	.94459	.512	
	어머니	아버지	1.33701	.344	
		부모 모두	2.28160	.109	
	부모 모두	아버지	-.94459	.512	
		어머니	-2.28160	.109	
친구관련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25245	.832	LSD
		부모 모두	2.50975*	.040	
	어머니	아버지	.25245	.832	
		부모 모두	2.76220*	.022	
	부모 모두	아버지	-2.50975*	.040	
		어머니	-2.76220*	.022	
가정적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1.62377	.088	LSD
		부모 모두	.50931	.598	
	어머니	아버지	1.62377	.088	
		부모 모두	2.13308*	.026	
	부모 모두	아버지	-.50931	.598	
		어머니	-2.13308*	.026	
신체외모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1.62500	.126	LSD
		부모 모두	1.37500	.204	
	어머니	아버지	1.62500	.126	
		부모 모두	3.00000*	.005	
	부모 모두	아버지	-1.37500	.204	
		어머니	-3.00000*	.005	
성격적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1.50490	.135	LSD
		부모 모두	1.16844	.255	
	어머니	아버지	1.50490	.135	
		부모 모두	2.67334*	.009	
	부모 모두	아버지	-1.16844	.255	
		어머니	-2.67334*	.009	

종속변수	(I)외국인 부모	(J)외국인 부모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신체능력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25980 1.11879	.770 .219	LSD
	어머니	아버지 부모 모두	-.25980 .85899	.770 .338	
	부모 모두	아버지 어머니	-1.11879 -.85899	.219 .338	
교사관련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2.53676* .60550	.001 .446	LSD
	어머니	아버지 부모 모두	2.53676* 3.14226*	.001 .000	
	부모 모두	아버지 어머니	-.60550 -3.14226*	.446 .000	
자아 존중감 전체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8.62010 8.23138	.107 .131	LSD
	어머니	아버지 부모 모두	8.62010 16.85148*	.107 .002	
	부모 모두	아버지 어머니	-8.23138 -16.85148*	.131 .002	

2) 아버지의 국적별 비교

종속변수	(I)아버지 국적	(J)아버지 국적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2.80000 2.65422*	.243 .033	LSD
	일본	한국 중국	2.80000 5.45422*	.243 .019	
	중국	한국 일본	2.65422* -5.45422*	.033 .019	
친구관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2.44000 2.13108*	.237 .047	LSD
	일본	한국 중국	2.44000 4.57108*	.237 .023	
	중국	한국 일본	-2.13108* -4.57108*	.047 .023	

종속변수	(I)아버지 국적	(J)아버지 국적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가정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1.42000 2.40651*	.377 .004	LSD
	일본	한국 중국	1.42000 3.82651*	.377 .015	
	중국	한국 일본	-2.40651* -3.82651*	.004 .015	
신체외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90000 2.94337*	.617 .002	LSD
	일본	한국 중국	.90000 3.84337*	.617 .028	
	중국	한국 일본	-2.94337* -3.84337*	.002 .028	
성격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1.64000 2.73229*	.334 .002	LSD
	일본	한국 중국	1.64000 4.37229*	.334 .028	
	중국	한국 일본	-2.73229* -4.37229*	.002 .028	
신체능력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2.34000 .70217	.126 .373	LSD
	일본	한국 중국	2.34000 3.04217*	.126 .040	
	중국	한국 일본	-.70217 -3.04217*	.373 .040	
교사관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중국	-1.46000 3.50145*	.253 .000	LSD
	일본	한국 중국	1.46000 4.96145*	.253 .000	
	중국	한국 일본	-3.50145* -4.96145*	.000 .000	
자아 존중감 전체	한국	일본 중국	-13.00000 17.07108*	.143 .000	LSD
	일본	한국 중국	13.00000 30.07108*	.143 .001	
	중국	한국 일본	-17.07108* -30.07108*	.000 .001	

3) 어머니의 국적별 비교

종속변수	(I)어머니 국적	(J)어머니 국적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1.09964	.464	LSD
		중국	1.11481	.429	
		필리핀	-5.98582	.154	
	일본	한국	1.09964	.464	
		중국	2.21445	.131	
		필리핀	-4.88618	.246	
	중국	한국	-1.11481	.429	
		일본	-2.21445	.131	
		필리핀	-7.10063	.090	
	필리핀	한국	5.98582	.154	
		일본	4.88618	.246	
		중국	7.10063	.090	
친구관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08199	.949	LSD
		중국	2.38940*	.047	
		필리핀	-3.56028	.317	
	일본	한국	-.08199	.949	
		중국	2.30741	.064	
		필리핀	-3.64228	.308	
	중국	한국	-2.38940*	.047	
		일본	-2.30741	.064	
		필리핀	-5.94969	.094	
	필리핀	한국	3.56028	.317	
		일본	3.64228	.308	
		중국	5.94969	.094	
가정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1.33887	.191	LSD
		중국	.31875	.739	
		필리핀	-2.18440	.443	
	일본	한국	1.33887	.191	
		중국	1.65762	.097	
		필리핀	-.84553	.767	
	중국	한국	-.31875	.739	
		일본	-1.65762	.097	
		필리핀	-2.50304	.378	
	필리핀	한국	2.18440	.443	
		일본	.84553	.767	
		중국	2.50304	.378	

종속변수	(I)아버지 국적	(J)아버지 국적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신체외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1.66009	.137	LSD
		중국	1.75592	.093	
		필리핀	-4.48936	.148	
	일본	한국	1.66009	.137	
		중국	3.41601*	.002	
		필리핀	-2.82927	.364	
	중국	한국	-1.75592	.093	
		일본	-3.41601*	.002	
필리핀	한국	-6.24528*	.044		
	중국	4.48936	.148		
성격적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1.72911	.107	LSD
		중국	1.26214	.208	
		필리핀	.14894	.906	
	일본	한국	1.72911	.107	
		중국	2.99126*	.005	
		필리핀	1.87805	.530	
	중국	한국	-1.26214	.208	
		일본	-2.99126*	.005	
필리핀	한국	-1.11321	.707		
	중국	-1.11321	.707		
신체능력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10535	.911	LSD
		중국	1.44681	.103	
		필리핀	-1.55319	.554	
	일본	한국	-.10535	.911	
		중국	1.34146	.145	
		필리핀	-1.65854	.529	
	중국	한국	-1.44681	.103	
		일본	-1.34146	.145	
필리핀	한국	-3.00000	.252		
	중국	1.55319	.554		
필리핀	한국	1.65854	.529		
	중국	3.00000	.252		

종속변수	(I)아버지 국적	(J)아버지 국적	평균차(I-J)	유의확률	비고
교사관련 자아 존중감	한국	일본	-2.71821*	.001	LSD
		중국	.55560	.476	
		필리핀	-2.75887	.235	
	일본	한국	2.71821*	.001	
		중국 필리핀	3.27382* -.04065	.000 .986	
	중국	한국	-.55560	.476	
		일본	-3.27382*	.000	
		필리핀	-3.31447	.152	
필리핀	한국	2.75887	.234		
	일본	.04065	.986		
	중국	3.31447	.152		
자아 존중감 전체	한국	일본	-8.35859	.140	LSD
		중국	8.84344	.096	
		필리핀	-20.38298	.196	
	일본	한국	8.35859	.140	
		중국 필리핀	17.20202* -12.02439	.002 .447	
	중국	한국	-8.84344	.096	
		일본 필리핀	-17.20202* -29.22642	.002 .064	
	필리핀	한국	20.38298	.196	
일본 중국		12.02439 29.22642	.447 .064		

3. 설문지

다문화청소년용

설문지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한 설문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및 소속 기관을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진실한 결과를 위하여 평소 느끼는 바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및 소속 기관을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진실한 결과를 위하여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연구자 김지혜

있습니까?

- ① 한 번도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12. 당신은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중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④ 고등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13. 고등학생이라면 소속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하세요.

-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특수목적고 ④ 대안학교 ⑤ 외국인학교

14. 당신의 아버지는 몇 세입니까?

- ① 35세 이하 ② 36세~40세 ③ 41세~45세 ④ 46세~50세 ⑤ 51세~55세
⑥ 56세~60세 ⑦ 61세~65세 ⑧ 65세 이상

15. 당신의 어머니는 몇 세입니까?

- ① 35세 이하 ② 36세~40세 ③ 41세~45세 ④ 46세~50세 ⑤ 51세~55세
⑥ 56세~60세 ⑦ 61세~65세 ⑧ 65세 이상

16. 당신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⑦ 알지 못함

17. 당신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⑦ 알지 못함

18.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외교관) ② 군인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④ 공장 및 건설 노동자 ⑤ 자영업 ⑥ 체육인
⑦ 야간업소 관련 일 ⑧ 연예인 ⑨ 종교인
⑩ 무직 ⑪ 농·임·어업 ⑫ 교직(유치원·초중고교사, 강사)
⑬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등) ⑭ 예술인(화가, 사진작가 등)
⑮ 알지 못함 ⑯ 기타 _____

19.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외교관) ② 군인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 ④ 공장 및 건설 노동자 ⑤ 자영업 ⑥ 체육인
- ⑦ 야간업소 관련 일 ⑧ 연예인 ⑨ 종교인
- ⑩ 가정주부 ⑪ 농·임·어업 ⑫ 교직(유치원·초중고교사, 강사)
- ⑬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등) ⑭ 예술인(화가, 사진작가 등)
- ⑮ 알지 못함 ⑯ 기타 _____

20.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은 얼마 정도인가요?

-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150만원
-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 ⑦ 301만원~350만원 ⑧ 351~400만원 ⑨ 400만원 이상

21. 당신의 학교 성적은 어떠합니까?

- ① 아주 못하는 편이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잘하는 편이다. ⑤ 아주 잘하는 편이다.

22.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대전광역시 ④ 광주광역시 ⑤ 부산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⑦ 대구광역시 ⑧ 강원도 ⑨ 경기도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 ⑯ 제주도

23.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대도시 지역 ② 중소도시 지역 ③ 읍면 지역 ④ 모름

♣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몸매(체격)는 훌륭하다.					
2. 나의 몸무게는 적당하다.					
3. 나의 얼굴을 잘 생겼다.					
4. 나의 키는 적당하다.					
5. 나의 피부색은 보기에 좋다.					

♣ 다음은 당신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때때로 나는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5. 부모님께서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게 하시는 편이다.					
6.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서는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7.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나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다.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					
14.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5.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화제가 있다.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을 드릴 수 있다.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 놓고 말씀 드릴 수 있다.					
18.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을 하신다.					
20.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당신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되살려서, 당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 나는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면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는다.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					
					4. 나의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잠깐 친구를 만나도 공부만 하라고 야단치신다.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7. 나는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원하시는 이성과만 교제할 것이다.					
					8. 나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					
					9. 나는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는다.					
					1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이야기 할 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렇게 해라” 하신다.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지만 만족해 하신다.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하신다.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신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다음에는 꼭 00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1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나 생각까지 알아차리신다.					
					17.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1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무조건 공부밖에 모르신다.					
					1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귀찮아도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신다.					
					2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2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걱정말아라, 힘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22.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					
					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2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신다.					
					25. 나의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신다.					
					2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무슨 일이던지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2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2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29. 우리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나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					
					3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심부름을 잘 못했을 때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워주시곤 한다.					
					3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관한 일도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신다.					
					3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만을 바라신다.					

♣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2. 나는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3. 나는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다.					
4. 나는 학교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5.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6. 나는 학교 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7.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9.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 선생님과 관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3.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4.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음/ 아님	조금	보통	많이	매우 많이
1.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2.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 합니까?					
3.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털어놓고 이야기 합니까?					
4.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5.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사이라고 생각합니까?					
6. 귀하의 비밀이나 마음속의 감정을 친구에게 어느 정도 털어 놓습니까?					
7.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합니까?					
8. 친구와는 어느 정도 좋은 사이입니까?					
9.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친구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합니까?					

♣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신다.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					
4. 나의 선생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5. 나의 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신다.					
6. 나의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 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신다.					
7.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곁에 있어준다.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준다.					

♣ 다음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기쁘다.					
2	나는 쉽게 짜증을 내서 걱정이다.					
3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다.					
4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셔서 기쁘다.					
5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6	나는 운동을 잘해서 자랑스럽다.					
7	부모님이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8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잘 치므로 자랑스럽다.					
9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좋아하셔서 속이 상한다.					
10	나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안타깝다.					
11	나는 이기적이라 걱정이다.					
12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화가 난다.					
13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4	선생님께서 나에게 차별대우를 하셔서 속이 상한다.					
15	나는 고집이 세서 걱정이다.					
16	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17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주 이겨서 기쁘다.					
18	나는 내 몸무게에 만족한다.					
19	나는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					
2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1	내 친구들이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어 기쁘다.					
22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럽다.					
23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어서 흐뭇하다.					
24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서 행복하다.					

번호	문항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나는 체육시간이 괴롭다.					
27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28	나는 화를 잘내서 걱정이다.					
29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나를 위로해 줄 친한 친구가 있어서 흐뭇하다.					
30	나는 내 피부색에 만족한다.					
31	나는 친구가 많아서 기쁘다.					
32	선생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셔서 기쁘다.					
33	나는 모든 맡은 일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34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기쁘다.					
35	내게는 좋은 점이 많아 자랑스럽다.					
36	선생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38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므로 행복하다.					
39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0	친구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뿌듯하다.					
41	나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라도 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42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한다.					
43	나는 체력이 좋아서 자랑스럽다.					
44	나는 아는 것이 많아 다른 아이들이 모를 때 알려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5	나는 남들 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 뿌듯하다.					
4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기쁘다.					
47	선생님께서 내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다.					
48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뿌듯하다.					
49	나는 남을 질투해서 걱정이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한 설문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및 소속 기관을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진실한 결과를 위하여 평소 느끼는 바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연구자 김 지 혜

문의처 : 010-3355-4223

1.당신은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 ① 중학생
- ② 고등학생
- ③ 중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④ 고등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2. 고등학생이라면 소속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하세요.

-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특수목적고 ④ 대안학교 ⑤ 외국인학교

3. 당신의 아버지는 몇 세입니까?

- ① 35세 이하 ② 36세~40세 ③ 41세~45세 ④ 46세~50세 ⑤ 51세~55세
- ⑥ 56세~60세 ⑦ 61세~65세 ⑧ 65세 이상

4. 당신의 어머니는 몇 세입니까?

- ① 35세 이하 ② 36세~40세 ③ 41세~45세 ④ 46세~50세 ⑤ 51세~55세
- ⑥ 56세~60세 ⑦ 61세~65세 ⑧ 65세 이상

5. 당신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⑦ 알지 못함

6. 당신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⑦ 알지 못함

7.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외교관) ② 군인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 ④ 공장 및 건설 노동자 ⑤ 자영업 ⑥ 체육인
- ⑦ 야간업소 관련 일 ⑧ 연예인 ⑨ 종교인
- ⑩ 무직 ⑪ 농·임·어업 ⑫ 교직(유치원·초중고교사, 강사)
- ⑬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등) ⑭ 예술인(화가, 사진작가 등)
- ⑮ 알지 못함 ⑯ 기타 _____

8.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외교관) ② 군인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 ④ 공장 및 건설 노동자 ⑤ 자영업 ⑥ 체육인
- ⑦ 야간업소 관련 일 ⑧ 연예인 ⑨ 종교인
- ⑩ 가정주부 ⑪ 농·임·어업 ⑫ 교직(유치원·초중고교사, 강사)
- ⑬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등) ⑭ 예술인(화가, 사진작가 등)
- ⑮ 알지 못함 ⑯ 기타 _____

9.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은 얼마 정도인가요?

-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150만원
-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 ⑦ 301만원~350만원 ⑧ 351~400만원 ⑨ 400만원 이상

10. 당신의 학교 성적은 어떠합니까?

- ① 아주 못하는 편이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잘하는 편이다. ⑤ 아주 잘하는 편이다.

11.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대전광역시 ④ 광주광역시 ⑤ 부산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⑦ 대구광역시 ⑧ 강원도 ⑨ 경기도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 ⑯ 제주도

12.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대도시 지역 ② 중소도시 지역 ③ 읍면 지역 ④ 모름

♣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몸매(체격)는 훌륭하다.					
2. 나의 몸무게는 적당하다.					
3. 나의 얼굴을 잘 생겼다.					
4. 나의 키는 적당하다.					
5. 나의 피부색은 보기에 좋다.					

♣ 다음은 당신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때때로 나는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5. 부모님께서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게 하시는 편이다.					
6.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서는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7.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나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다.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					
14.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5.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화제가 있다.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을 드릴 수 있다.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 놓고 말씀 드릴 수 있다.					
18.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을 하신다.					
20.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당신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되살려서, 당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 나는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면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는다.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					
					4. 나의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잠깐 친구를 만나도 공부만 하라고 야단치신다.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7. 나는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원하시는 이성과만 교체할 것이다.					
					8. 나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					
					9. 나는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는다.					
					1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이야기 할 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렇게 해라” 하신다.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지만 만족해 하신다.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하신다.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신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다음에는 꼭 00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1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나 생각까지 알아차리신다.					
					17.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1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무조건 공부밖에 모르신다.					
					1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귀찮아도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신다.					
					2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2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걱정말아라, 힘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22.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					
					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2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신다.					
					25. 나의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신다.					
					2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무슨 일이던지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2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2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29. 우리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나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					
					3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심부름을 잘 못했을 때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워주시곤 한다.					
					3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관한 일도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신다.					
					3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만을 바라신다.					

♣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2. 나는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3. 나는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다.					
4. 나는 학교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5.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6. 나는 학교 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7.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9.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 선생님과 관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3.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4.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음/ 아님	조금	보통	많이	매우 많이
1.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2. 친구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 합니까?					
3.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털어놓고 이야기 합니까?					
4.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5.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사이라고 생각합니까?					
6. 귀하의 비밀이나 마음속의 감정을 친구에게 어느 정도 털어 놓습니까?					
7.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합니까?					
8. 친구와는 어느 정도 좋은 사이입니까?					
9.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친구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합니까?					

♣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신다.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					
4. 나의 선생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5. 나의 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신다.					
6. 나의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 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신다.					
7.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곁에 있어준다.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준다.					

♣ 다음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기쁘다.					
2	나는 쉽게 짜증을 내서 걱정이다.					
3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다.					
4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셔서 기쁘다.					
5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6	나는 운동을 잘해서 자랑스럽다.					
7	부모님이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8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잘 치므로 자랑스럽다.					
9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좋아하셔서 속이 상한다.					
10	나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안타깝다.					
11	나는 이기적이라 걱정이다.					
12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화가 난다.					
13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4	선생님께서 나에게 차별대우를 하셔서 속이 상한다.					
15	나는 고집이 세서 걱정이다.					
16	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17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주 이겨서 기쁘다.					
18	나는 내 몸무게에 만족한다.					
19	나는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					
2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1	내 친구들이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어 기쁘다.					
22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럽다.					
23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어서 흐뭇하다.					
24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서 행복하다.					

번호	문항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나는 체육시간이 괴롭다.					
27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28	나는 화를 잘내서 걱정이다.					
29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나를 위로해 줄 친한 친구가 있어서 흐뭇하다.					
30	나는 내 피부색에 만족한다.					
31	나는 친구가 많아서 기쁘다.					
32	선생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셔서 기쁘다.					
33	나는 모든 맡은 일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34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기쁘다.					
35	내게는 좋은 점이 많아 자랑스럽다.					
36	선생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38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므로 행복하다.					
39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0	친구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뿌듯하다.					
41	나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라도 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42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한다.					
43	나는 체력이 좋아서 자랑스럽다.					
44	나는 아는 것이 많아 다른 아이들이 모를 때 알려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5	나는 남들 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 뿌듯하다.					
4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기쁘다.					
47	선생님께서 내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다.					
48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뿌듯하다.					
49	나는 남을 질투해서 걱정이다.					